

박해수 “우주공간처럼 미스터리한 인물에 끌려”

tvN ‘화양연화’ 첫 시청률 5.4% 안방극장 정통 멜로극의 ‘구원투수’로 등장



‘사냥의 시간’

희망이 사라진 가까운 미래, 한탄을 노린 후 도주하는 네 청년을 추적하는 한 명의 사냥꾼. 이 사냥꾼은 마치 맹수처럼 먹잇감을 쫓는다. 그의 정체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사냥을 즐기는 무자비함과 미스터리함이 사냥꾼의 특징이다.

넷플릭스로 공개된 영화 ‘사냥의 시간’ 한 이야기다. 한을 연기한 배우 박해수(39)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한의 과거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고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삶과 죽음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것이 한이 사냥감을 쫓는 이유가 되죠.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의 평온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죽어있는 상태로 생각해요. 사냥감을 발견하자 그의 심장이 뛰게 돼요.” 불친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영화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한의 미스터리함을 박해수는 “우주 공간 같았다. 그래서 끌렸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의 안톤 시거를 참고하긴 했는데, 한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움직이는 동기와 행동 자체가 다르죠. 영화 안의 서스펜스 요소가 되는 인물을 계속 연기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죠.”

이런 한을 연기하기 위해 박해수는 유난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밤이 배경인 장면이 대부분이고, 한은 어둠 속에서 나타날 때가 많죠. 그래서 다른 배우들과 떨어져 거의 혼자 있었어요. 한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데, 단순히 고독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외로움이 흡수된 상태여야 할 것 같아요. 당시에 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외롭고 힘들었나 봐요.”

넷플릭스 공개 영화 ‘사냥의 시간’ 출연 한탄 노린 네 청년을 쫓는 사냥꾼 역 액션장면 위해 총기 사용법 훈련 받아

액션 장면을 위해서는 옷에서 나는 냄새까지 신경 썼다. “총기 액션은 특수부 요원에게 오래 교육을 받았고 총기 사용법도 훈련했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한의 옷에서 타는 냄새가 배어있길 원했죠.”

전작 ‘양자물리학’(2019)의 유쾌한 모습과 180도 다른 인물이지만, 박해수는 “연기 변신까지는 아니다.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다”며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감독의 세계관에 들어가라고 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극장 개봉을 하려면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기까지 법정 공방이라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것의 장점도 많다. 더 많은 시청자가 영화를 여러 번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사냥의 시간’) 작은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쫓고 쫓기는 순간순간의 호흡을 느끼고 다시 볼 때는 인물에게 어떤 과거가 있고 그 인물이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편 윤성현 감독 이번 신작 ‘사냥의 시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에 나왔다. 2011년 데뷔작 ‘파수꾼’ 이후 9년 만이다. 완성되고도 공개까지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



박해수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행을 택하면서 법정 공방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언급한 대로 이 작품 배경은 희망이 사라진 도시다. IMF 금융위기가 닥치고, 거리에는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시위대 구호가 울려 퍼진다. 그라피티로 가득한 빈민가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청년들은 범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낯설면서도 낯익은 광경들이다. 설정은 가까운 미래지만,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을 풍자했음을 알 수 있다. 화상으로 만난 윤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 관객이 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겁도 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 감독은 “청년 세대가 한국 사회를 지속에 빚된 것을 보고 우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의 생존에 관한 유유가 담긴 영화”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최근 안방극장에서 멜로 드라마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양연화’가 정통 멜로극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한 tvN 새 주말드라마 ‘화양연화’ 1회 시청률은 5.431%(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드라마는 1993년과 2020년을 오가며 막을 열었다. 듀스, 너바나, PC통신, 영화 ‘러브레터’ 등 당시 유행한 문화를 배경으로 운동권 대학생들 이야기가 중심을 이뤘다.

열혈 운동권이던 재현(진영·유지태 분)은 정리해고를 일삼는 기업 전무가 됐다. 농성을 벌이는 직원들이 던진 날계란을 맞고 동지의 장례식에 갔다가 박대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 유대 신입생이던 지수(이보영·전소니)는 찬 길바닥에서 해고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피아노 치는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먹고사는 처지로 변했다.

드라마는 이렇듯 서로 모든 것이 뒤바뀐 채 살아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키스 먼저 할까요?’(2018)로 성숙한 멜로를 그려낸 손정현 PD는 이번에도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연출을 선보였다. 막장 끝인 밤, 흘날리는 눈 때문에 적당한 철길에서 재현과 지수가 조우하는 장면은 감성을 자극하며 호평을 얻었다.

첫 회의 특성상 드라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데도 유지태와 이보영은 어른이 된 후 쌓인 수밖에 없는 삶의 피곤함을 훌륭히 표현하며 감정을 끌어올렸다.

장르극이 안방극장 대체로 자리 잡고 잔잔한 멜로극은 외면받는 요즘, 정통 멜로극 ‘화양연화’가 과연 얼마나 시청자를 불러모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결그룹 블랙핑크 ‘스테이’ 유튜브 2억 뷰 돌파

결그룹 블랙핑크의 ‘스테이’(STAY) 뮤직비디오가 지난 24일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스테이’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발표된 블랙핑크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스퀘어 투’(SQUARE TWO)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다. 서정적인 어쿠스틱 포크 팝 장르의 곡으로, 뮤직비디오에서도 멤버들의 감성적인 연기가 부각됐다.

YG는 이번 2억 뷰 돌파에 대해 “‘스테이’가 단박에 시선을 끄는 퍼포먼스나 폭발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비주얼이 필요치 않은 어쿠스틱 팝 장르인 점을 떠올리면 이례적”이라고 자평했다.

블랙핑크는 ‘스테이’ 외에도 ‘뚜두뚜두’ 11억 뷰, ‘킬 디스 러브’·‘봄바야’ 8억 뷰, ‘마지막처럼’ 7억 뷰, ‘불장난’·‘휘파람’ 4억 뷰 등 그동안 발매한 모든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넘겼다.

블랙핑크는 현재 컴백 준비 중이며, 세계적 팝스타 레یدی 가가의 새 앨범 수록곡 ‘크로마티카’(Chromatica)에 피쳐링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아이유, 방탄소년단 슈가와 손잡고 신곡 발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7)가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27)와 함께 작업한 신곡을 내놓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다음 달 6일 슈가와 협업한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같은 또래 뮤지션으로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며 그들의 시너지를 음악에 녹여냈다”며 “아이유는 슈가와 협업을 통해 기존에 선보였던 음악 스타일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음악을 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유가 신곡을 내놓기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미니 5집 ‘러브 포엠’(Love poem) 이후 6개월 만으로, 아이유는 작사·작곡을 비롯해 콘셉트 등 전반적인 제작에 참여했다.

‘러브 포엠’은 발매 당시 타이틀곡 ‘블루밍’(Blueming) 등 수록곡이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서 ‘줄 세우기’를 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앨범명과 같은 이름으로 개최한 아시아 투어에서 전석을 매진시키며 총 9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이유



슈가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문냉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동·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福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화점)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은 진한 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옷, 양초 판매 ☎ 061)334-0088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투펀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